

젊은 예술가의 창조의 전유

안 정 숙

1

『젊은 예술가의 초상』(*A Portrait of the Artist as a Young Man*)은 젊은 청년 남자로서의(as a Young Man) 예술가의 초상이다. 이 제목을 듣고 대부분의 독자는 예술가가 남성임을 의심하지 않는다. ‘Man’이 일차적으로 남성을 가리키는 말이라고 받아들이기 때문이다. 조이스(James Joyce)에게 있어서 전기적으로도 그렇고 작품에서 인물을 다루는데 있어서도 여성은 주인공이 아니다. 조이스에 대한 비평 가운데 페미니즘과 관련된 것을 일별하자면 넓은 범주에 걸쳐 펼쳐진 것을 알 수 있다. 절친한 친구 사이였던 프랭크 버전(Frank Budgen)에게 한 말을 보면 조이스가 똑똑한 여자를 지겨워한 것은 분명하다(버전 319).

헤일브룬(Carolyn Heilbrun)은 그를 여성혐오자라고 불렀으나(215-6) 울프(Virginia Woolf)는 그가 야비한 언어를 사용한 것이 혐오스럽기는 해도 그의 구조적 혁신은 찬양할만한 것이라고 인정했다(154-5). 스티빙즈(Diane Stubbings)는 어머니와 아들의 창조 공간에 대한 투쟁은 『더블린 사람들』부터 『젊은 예술가의 초상』, 『율리시즈』, 『피네간의 경야』까지 일관성 있게 다루어지는 주제라고 말한다(3-4). 사회 문화적 문맥 속에서 모상(mother-figure)을 분석한 그녀는 예술가는 어머니와의 결합을 통해 자신의 창조 공간으로 되돌아가 어머니의 공간을 전유한다(appropriate) 동시에 민족주의라는 이상으로부터 강요당하는 짐을 지기도 한다

고 주장한다(4). 이 때의 어머니는 남근적 어머니로서 아들이 벗어나야 할 대상이 되며 타자이다.

『젊은 예술가의 초상』에서 서술은 전적으로 남자 주인공인 스티븐 디달러스(Stephen Dedalus)를 중심으로 이루어져 있다. 여성은 남성이 주체를 찾아가는 모험과정에 타자로 위치해 있다. 그러므로 적극적이며 긍정적인 남성의 가치를 성립시키는 이항대립의 제 2항이거나 텅 비어있는 존재이다. 『율리시즈』(Ulysses)에서 비교적 살아 있는 인물인 몰리(Molly)가 정신/육체, 지성/감정, 지식/무지 등의 뒤편의 특성을 부여받고 있다면 『젊은 예술가의 초상』에 나오는 여성들은 전혀 인간적 속성도 없이 텅 비어 스티븐의 자기에 대한 이미지를 투사하는 거울이다. 그러므로 여성들은 스티븐이 성장하는 과정에서 그의 감정과 사고가 투사되어 천사, 혹은 악녀의 모습을 띤다. 즉 신비화되는 과정에서 여성은 이중적이고 기만적인 모습을 띤 것이다. 타자로서의 여성은 스티븐의 상상 속에서 정복되고 지배당하므로 감정이나 사고, 심지어 그들의 말소리조차 그려지지 않는다. 헨케(Suzette Henke)는 스티븐이 가리는 영원한 유희녀는 남근적 어머니의 복제로서 만족을 유보시킨다고 주장한다. 어머니에 대한 이끌림은 억압되고 빛나는 여성적 미의 초상으로 대체된다(Kershner 323).

2

스티븐은 그를 억압하는 현실세계의 질서를 대표하는 아버지와 상징질서를 강요하는 남근적 어머니를 벗어나는 과정을 거쳐 예술가로서의 소명을 깨닫는다. 소명을 실현하기 위해 그는 자기를 잃어내는 사회적 조건들을 벗어나기로 결심하고 “나는 내가 이미 믿지 않는 것은 그 이름이 가정이건, 조국이건 혹은 교회이건 간에 섬기지 않을 거”(p 246-7)라는 결심을 굳히며 마음을 무겁게 누르는 더블린(p 111)을 탈출하겠다고 선언한다.

스티븐은 유년 시절 자신의 아이덴티티를 상징질서 내에 위치시키기 위해 자신을 언어로 표현한다. 즉 알튀세르가 말하는 호명(interpellation)에 부응할 준비를 한다. 현실세계에서 주체가 사라지는 것을 막기 위해서이다.

Stephen Dedalus
 Class of Elements
 Clongowes Wood College
 Sallins
 County Kildare
 Ireland
 Europe
 The World
 The Universe (P 15-6)

스티븐이 지리책 안쪽 표지에 써 놓은 글이다. 그는 그것을 읽으며 자기 자신, 그의 이름 그리고 자기 위치가 거기 있다고 생각한다. 그는 친구인 플레밍(Fleming)이 반대편 표지에 써 놓은 것을 읽으며 그것이 자기라고 말한다.

Stephen Dedalus is my name,
 Ireland is my nation.
 Clongowes is my dwellingplace
 And heaven is my expectation. (P 16)

그는 사회적 기표인 이름에 관심이 크다. 지리책에 나오는 지명들에 흥미를 가지며 신(God)의 이름에 대해 생각한다. 그리고 프랑스 사람은 신을 “Dieu”라고 부르는데 왜 신에게는 여러 가지 이름이 있는지 궁금해한다. 그는 기표와 기의가 고정된 상징 체계에 의문을 품는다. 신은 신이 아니라 다른 기표들과의 관계 때문에 의미를 가짐을 모르는 것이다. 그리고 각기 다른 이름으로 불리워도 신은 신이라고 그의 진짜 이름은 신(God)이라고 말한다(P 16). 그는 기표와 기의 사이에 틈이 있으며 언어와 현실세계 사이의 틈이 있는 것을 모른다.

이 균열을 통하여 개인은 상징계를 떠나 기호계로 진입하는데 작가는 가부장적 문화 전통이 부과한 장소를 거부하는 어머니를 씌으로써, 즉 사회적 상징적으로 성역화된 공간을 넘어서서 존재하는 어머니를 씌으로써 상징 질서의 최하층으로 진입할 수 있다(스티븐즈 12). 예술가가 되고자 하는 스티븐의 성장 과정은 어머니에의 화귀와 극복, 전유의 과정에 다름 아니다.

기호계로 돌아가 어머니 상을 해체하는 것은 작가로 하여금 어머니를 재구축

하게 만들고 재구성된 얼굴 속에서 자아의 이미지를 새겨 넣을 수 있다. 어머니의 얼굴 속에서 작가의 얼굴을 비춰보는 것이 바로 창조력을 획득하는 곳이며 문화 전통 및 재현을 분열시킬 가능성의 근거를 획득하는 곳이다(스티빙즈 17). 아이는 우선 어머니를 만나야 자기를 과거와 담론, 전통에 묶는 사회적 상징적 구조를 다시 쓸 수 있게 된다(스티빙즈 13). 그는 전오이디푸스적(Pre-Oedipal) 단계에 고착되어 어머니와 긴밀한 관계를 맺고 있다. 유년기가 지나고 대학생이 되어서도 어머니가 세수를 시켜주고 “대학생이 이렇게 더러워서 엄마가 씻겨서야 되겠냐”라는 어머니의 편견에 “어머니도 좋아하지 않느냐”(But it gives you pleasure)(P 175)고 응수한다.

전오이디푸스기의 거울 속에서 어머니와의 기억은 행복하고 따스하다. 언어를 가르치는 아버지와 달리 어머니는 리듬과 감각들을 통해 위안을 준다. 스티븐이 아기였을 때 오줌을 싸까봐 이부자리에 어머니가 깔아준 유지에서 이상한 냄새가 났고 어머니의 냄새는 아버지보다 좋았다. 그리고 어머니의 피아노 소리가 기억나고 즐겁게 춤추는 자기 모습이 떠오른다(P 7).

스티븐이 화상 속에서 어머니와의 관계로 돌아가는 것은 거친 남성 세계에서 좌절을 느낄 때이다. 클롱고우스(Clongowes) 학교에 다닐 때 스티븐은 신체적으로 허약해서 급우들과의 거친 운동이나 장난에 끼어 들지 못하고 소외되어 있다. 그에게 불쾌한 경험이 생길 때마다 기분을 전환시켜 주는 것은 어머니에 대한 생각들이다. 급우인 웰즈(Wells)가 자기의 치기놀이 밤알을 스티븐이 코담배갑과 바꿔 주지 않는다고 스티븐을 밀어 도랑에 빠뜨리는데 그 물의 차갑고 끈끈한 감촉을 생각하며 몸서리를 치며 어머니와의 추억을 떠올린다. 학교에 입학하기 전 어머니가 흥차를 기다리며 두발을 난로의 철조망에 올려놓으면 구슬 달린 슬리퍼가 뜨겁게 달구어지고 그렇게 따듯하고 좋은 냄새가 날 수 없었다고 회상한다. 웰즈는 스티븐에 대한 분노 때문에 또 다른 장난을 하는데 스티븐에게 잠자기 전에 어머니에게 키스하느냐고 묻는다. 스티븐이 “한다”고 하자 밤마다 자기 엄마에게 키스를 하는 애가 여기 있다고 큰소리로 다른 급우들에게 알려 웃음거리를 만들고 스티븐이 당황하여 “안 한다”고 하자 자기 엄마에게 키스도 안 하는 놈이 여기 있다고 말해 또 망신을 준다. 혼란스런 스티븐은 키스의 의미를 생각하며 어머니에게 밤 인사를 하면 어머니가 입술을 뺨에 대고 “그 입술은 보드랍고 내 뺨을 적신다. 그리고 조그만 소리가 나, 키스, 이렇게”(P 14)라고 현실의 불쾌감을 벗어난다.

그러나 현실세계에서 어머니는 상징질서의 억압을 대표하는 인물로 나타난다. 스티븐의 어머니는 신앙을 강요하는 남근적 어머니이다. 아들을 희생시키는 어머니라는 모티프는 1880년 이후로 활발해진 문예부흥운동의 결실로 학자, 시인, 극작가, 민속학자들이 갤릭 전통으로부터 찾아내서 민족 의식의 고취라는 측면에서 과거를 재해석한 것이다(스티빙즈 7).

영국의 지배 하에 아일랜드 여성들은 민족 해방의 대의에 복무하도록 요구 받았으며 또한 아일랜드의 정신적 지주로서 가톨릭의 담론들을 옹호하고 가난과 혼란한 사회적 상황에서 가정을 지켜야 했다. 그러므로 어머니는 저항운동의 상징적 근원으로 그려졌다(스티빙즈 23). 그녀는 스티븐이 사제직을 거부하고 일반 대학에 진학하기로 결정한 것에 대해 우려를 나타내고 부활절 미사에 참석하기를 종용한다. 어머니는 그의 신앙심이 약해지는 것을 지켜보며 그와 논쟁을 벌이는데 이때 그녀는 “거세하는 어머니”(Scott 22)의 이미지를 띤다. 그는 자기가 수양 아들 같다고 생각하며(P 98) “두 사람의 생이 소리 없이 처음으로 갈려졌음을 느낀다”(P 165).

스티븐은 교회의 어머니로서 성모 마리아에게 이끌린 적이 있다. 창녀촌에 갔다 온 이후로 심한 자책감에 빠져 있을 때 마리아는 용서와 축복을 약속하는 것 같다(“성모의 눈은 온화한 동정에 어려 그를 바라보는 것 같았다. 연약한 육체 위에 그윽히 빛나는 신비스러운 빛 그녀의 성스러움은 그녀에게 다가서는 죄인에게 굴욕감을 느끼게 하지는 않았다”)(P 105).

손을 잡아라. 스티븐과 에마. 지금 하늘나라는 아름다운 저녁이란다. 너희가 과오를 범했지만 너희는 언제나 아름다운 나의 아이들이란다. 하나의 마음을 사랑하는 것은 또 하나의 마음. 아이들아, 서로 손을 잡으면 함께 행복할 수 있고 또 너희의 마음은 서로를 사랑하리라. (P 116)

그러나 성모에게도 스티븐의 소망이 투사되었을 뿐이어서 용서와 은총은 바로 스티븐 자신이 베푸는 것이다. 성모가 약속하는 것은 그의 욕망을 충족시키는 것이 아니라 엄격하며 생기 없는 금욕적 사제로서의 삶이다.

한계에 의하면 어머니는 환상의 남근적 권력의 키메라(Chimera)로서 언제라도 남성을 압도하고 삼켜버리고 거세할 수 있다(2). 댄티 아줌마는 거세에의 위협을 가하는 또 다른 현실적인 어머니이다. 스티븐은 옆집인 반즈네의 아기였던 아이릴

(Eileen)하고 결혼하겠다고 말하는데 이에 대해 신교도였던 아일린과 사귀면 독수리가 와서 눈을 빼간다는 말을 듣는다.

눈을 빨거야
빌어라
빌어야 해
눈을 빼간다

빌어라
눈을 빨거야
눈을 빼간다
빌어라. (P 8)

눈을 빼간다는 것은 거세에의 위협이고 아일린에 대한 기억은 이해할 수 없는, 불편한 것으로 남아있다. 구교와 신교 간의 갈등은 이해되지 않는 기표로 남을 뿐이다. 신교도들은 구교의 마리아 숭배를 조롱하며 “Tower of Ivory, House of Gold”라고 부르곤 했는데 스티븐은 여자가 어떻게 상아탑이나 황금이 집이 되는지 이해하려고 한다. 스티븐은 아일린의 희고 매끄러운 손을 상아탑(Tower of Ivory)의 이미지와 연결짓는다(P 42). 스티븐이 세계를 이해하는 방법의 전형적인 예로서 그는 알 수 없는 사물이나 현상을 보면 그것을 감각을 통해 해명하려 한다. 아일린이 금발을 노랗게 햇빛에 날리며 뛰어가는 것을 보고 그것이 바로 황금의 집이라는 말의 뜻이라고 생각한다. 이때 아일린은 성모 마리아의 이미지와 연결되었다가 곧 유혹하는 여성의 모습을 보인다. 스티븐과 함께 어떤 호텔 정원을 들여다 보다가 그의 주머니에 손을 넣고 “주머니가 재미있는 물건”이라고 말하곤 갑자기 멀리 뛰어가며 웃는 것이다(P 43).

3

아일랜드에 어머니는 두 가지 이미지가 있다고 스티빙즈는 말한다. 가부장제의 명령에 따라 난롯가에 묶여 가족의 필요에 봉사하는 “현모” 이미지와 “사이렌”인데

조이스도 암시했듯이 신화적 어머니는 “사이렌”으로서 남자들을 유혹하여 자기가 의인화하고 있는 대의(cause)에 복무케 만든다(7). 민족의 단결을 주장하는 데이빈(Davin)에게 “이 나라에서는 한 사람의 영혼이 탄생하면 그것이 날지 못하게 그물을 씌워버려. 넌 국가니, 언어니, 종교니 하지만 난 그런 그물들을 뚫고 날아가 버릴 거”(P 203)라며 스티븐은 “아일랜드는 제 새끼를 잡아먹는 암돼지”라고 말한다.

유혹하여 희생시키는 여성의 배신적인 이미지는 거의 모든 계층의 사람들을 망라하고 있다. 데이빈이 축구 경기를 보고 돌아오던 길에 그를 유혹했던 사골 아낙네를 스티븐은 박쥐로 비유하며 자기민족의 전형이라고 여긴다.

“그것은 클레인에서 학교 차가 지날 때에 문간에 서있는 것을 본 농촌 아낙네들의 모습 속에 그녀와 그의 민족의 전형인 듯한 박쥐와 같은 영혼을 반영하고 있었다. 암흑과 비밀과 고독 속에서 의식이 깨어나 순박한 여인의 눈매와 말소리와 몸짓으로 나그네를 잠자리로 불러들이는 박쥐와 같은 영혼.”

(P 183)

헨케는 조이스가 성녀/창녀의 이분법이 아니라 자기애적 성녀/남근적 어머니의 이분법을 전제하고 있다고 본다(헨케 2). 그러나 작품에 나오는 여성들은 스티븐에게 거의 모두 유혹녀인 것으로 보인다. 욕망에 가득 찬 눈은 한 왕조(스튜어트)를 시궁창의 찌꺼기로 덮으며 코벤트 가든의 관람석에서 교태를 부리는 숙녀들, 곰보자국이 지저분한 술집 작부들, 바람둥이에게 교태를 부리는 젊은 부인들(P 223) 모두가 성적으로 타락한 모습들이며 누더기를 걸치고 지저분한 얼굴로 단골이시니까 꽃을 팔아달라고 조르는 소녀, 큰소리로 노래를 흥얼거리는 옆집 식모, 자기가 넘어질 뻔했을 때 웃어대며 놀리던 여자, 스티븐이 쳐다보자 노골적으로 “내가 마음에 들어요?”라고 말하며 유혹하던 여자(P 221) 등 저속하고 믿을 수 없는 존재들이다.

유혹하는 어머니가 애국심이라는 대의로 아들을 이끄는 것에 스티븐은 저항한다. 헨케는 에마가 스티븐의 어머니의 대체라고 말한다(커쉬너 323). 에마는 민족주의 운동에 관심이 있으며 아일랜드 고유어인 게릴릭어 강습에 열성적으로 참여한다. 몇 번 강습회에 갔던 스티븐은 아일랜드 문예부흥 운동에 참여하는 것을 거부한다. 그것은 애국심이라는 거대담론에 대한 저항과 운동을 주도하는 젊은 신부에

대한 개인적인 열등감이 덧붙여진 때문이다. 신부는 에마와 친밀한 것처럼 보인다. 자기가 거부한 사제직이 여자 친구의 관심을 끄는 것을 보고 묘한 열등감을 느낀다. 그는 에마가 신부를 유혹하는 장면을 공상한다.

에마는 그 이름조차 생략되어 E-C-(Emma Cleary)로 나오는데 스티븐의 유년 시절부터 그의 관심을 끌었던 여성이다. 에마와의 관계는 그의 예술가가 되려는 여정에 중대한 역할을 한다. 그녀는 스티븐에게 텅 빈 타자로서 그의 사랑과 공포, 불안, 열등감을 투사하는 대상이다. 조이스는 이 작품의 전신이라고 할 *Stephen Hero*에서는 생생한 인물로 그려냈었는데(Riquelm 104) 개작이라고 할 『젊은 예술가의 초상』에서는 에마를 흐릿하게 처리하는 것이 청년 예술가의 성장을 그리는 데 적절하다고 판단한 것 같다. 보니 스콧(Bonnie Kime Scott)도 조이스가 자신과 동일한 인물로 설정하여 좀 더 쉽게 내면적 갈등을 드러내고 예술적 성숙을 향해 가는 플롯에 초점을 맞출 수 있었으므로 에마를 주변적 이미지로 채택했다고 말한다(154). 그리고 조이스가 글을 쓸 당시 스티븐과 에마의 관계를 잘 다룰 준비가 되지 않았던 것 같다.

E-C- 는 스티븐의 응시의 대상일 뿐이며 내면은 그려지지 않는다. 어린 시절의 그녀는 유혹적이고 성인이 되어서는 국가와 언어라는 상징질서를 강요한다. 처음으로 그녀를 독자가 직접 보는 것은 생일 파티에서이다. 이때 그녀는 스티븐에게 유혹적이다. 스티븐이 노래를 마치고 구석에 앉아 고독을 즐기고 있을 때 에마의 시선을 느낀다. 음악과 춤이 어지러운 가운데 춤을 추던 원을 넘어서 “그녀의 눈길이 자기가 있는 구석으로 다기왔고 아부하는 듯, 깔보는 듯, 탐색하는 듯, 그의 마음을 흥분시키는 듯”했다(P 69).

파티가 끝나고 전차를 탔을 때 에마는 일층에서 그가 있는 이층으로 여러 번 올라왔고 한번은 그의 곁에 가까이 서서 내려가지 않았다. 그는 가슴이 두근거리고 그녀의 눈이 말하는 것을 들었다고 생각한다. 그녀는 그가 자기를 잡기를 바랐을 거라고 주위에 아무도 없었으므로 자기가 키스할 수도 있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P 69). 그는 주저하며 아무 행동도 하지 않는데 그 때 아일린과의 일이 다시 떠오른다. 이것은 두 여자의 행동 모두를 유혹으로 보는 것이다.

아넬 신부(Father Arnall)의 무시무시한 자옥의 설교를 듣고 난 후 스티븐에게 에마의 영상이 나타나고 홍수 같은 수치심이 솟구치는 것을 느꼈다(P 101).

그가 마음 속으로 그녀를 어떤 대상으로 삼았으며 어떻게 짐승 같은 욕정이 그녀의 순결을 갈가리 갈기 찢고 짓밟았는가를 그녀가 안다면. 그게 소년다운 사랑이던가? 그게 기사도이던가? 그게 시이던가? (P 101)

아넬 신부의 설교를 듣고 그는 에마에게 죄책감을 느껴 “자기가 넓은 들에 에마 가까이 서서 겸허하게 눈물을 흘리며 몸을 굽혀 그녀의 소매 자락에 입을 맞추는 광경”을 상상할 수 있었다(P 101). 스티븐은 에마와 애정을 주고받는 관계가 아니다. 그의 일방적인 추측과 원망에 의해 그녀의 모습은 이중적인 모습을 띤다. 에마는 남근적 어머니의 이미지를 가지고 있으며 그의 만족을 계속 유보한다.

발베디어 학교에서 연극이 끝나고 에마가 사라져 그녀를 만나리라는 기대가 무산되었을 때 그는 자존심이 상하고 욕망이 무너져 내리는 것을 느낀다. 이후로는 에마를 이 나라 여성의 상징, 박쥐 같은 영혼이라고 생각한다.

암흑과 비밀과 고독 속에 자아를 의식하며 깨어나는 박쥐와 같은 영혼, 얼마 동안은 사랑도 없이 죄도 없이 순한 애인과 머물러 있었다. 그를 떠난 다음엔 창살을 사이에 두고 신부의 귀에다가 천진한 파계를 속삭이는 박쥐같은 영혼, 이 나라 여성의 상징, 여자에 대한 분노가 그녀의 애인을 향한 거친 욕설이 되어 터져 나왔다. 그 애인의 이름과 목소리와 생김새가 그의 꺾인 자존심에 거슬렸다.” (P 221)

시시한 사제 녀석에게 제 영혼의 수줍은 나신을 벗겨 보이려고 “영원한 상상력의 사제, 경험이라고 하는 날마다의 빵을 영원한 상상력의 빛나는 육체로 바꾸는 나에게”(P 221) 배신을 한 것이라고 분노한다. 에마는 스티븐의 상상 속에서 웃을 벗는다. 처음에는 영혼이, 그 이후는 문자 그대로 나신이 된다.

스티븐의 성장 단계마다 서술자의 목소리는 어조를 달리한다. 고트프리트(Gottfried)는 심각하게 비꼬는 어조가 아니라 유머라고 해석하나(4) 조이스가 스티븐의 유치한 지적 성장을 내려다보며 거리를 두기 때문에 후반으로 갈수록 작가의 아이러니는 두드러진다고 보인다. 일기는 대표적인 균열로서 매끄러운 서술에 전복의 힘을 가지고 있다. 독자는 서술의 틈을 찾아낼 수 있다. 일기 내용을 보면 에마는 그가 무슨 시를 쓰는지도 모르고 있으며 형식적인 악수를 나누고 멀어져 간다. 이때 스티븐은 그녀가 새롭게 보이고 자신의 이전의 생각이 오해에 근거하고 있을지 모른다는 반성을 한다. 그러나 다른 세계를 향해 도피하려는 그에게 생각

을 이어 나갈 여유가 없어 집어치우라고 스스로에게 촉구한다. 자고 나면 잊혀지므로(*P* 252). 실제의 에마와의 관계는 그리 밀접하지 않았으리라는 증거로 스티븐이 자기가 생각하는 만큼 에마도 자기를 생각하고 있는지 회의하는 모습에서 서술의 틈이 벌어지는 것에서 알 수 있다(*P* 69).

3

스티븐은 아버지의 이름으로 구축된 상징계를 버리고 남근적 어머니를 희생시켜 자신의 주체를 획득하는데 성공한다. 스티븐은 실제 세계보다는 그것을 가리키는 언어를 접하며 그 말의 의미와의 관계를 천착하는데 주로 언어의 이미지와 만나는 것으로써 언어가 주는 느낌을 중심으로 사고를 전개한다. 그는 자기의 흔치 않은 성인 디달러스(*Dedalus*) 때문에 놀림을 받으며 이름에 대해 생각한다. 그가 부당하게 돌란(*Dolan*) 신부에게 체벌을 받았을 때 그의 이름을 몇 번이나 반복해 물어보는 것이 그의 자아에 상처를 준다. 빨래하는 여자 이름 같은 이름(*Dolan*)을 가진 주제에 *Dedalus*라는 이름을 조롱한다고 마음 속으로 복수한다. 그는 이름은 사회적 지위를 나타내는 공적인 것이며 특별한 의미가 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한다. 브런즈(*Bruns*)의 말대로 스티븐의 문제는 그 이름에 거창한 이야기가 담겨 있다는 점이다(*브런즈* 168). 그의 이름은 최초의 순교자인 스티븐(*Stephen*)이기도 하고 명장 다이달러스(*Daedalus*)이기도 하다. 그는 스스로 자기 이름에 뜻을 부여하기 시작한다. 시내의 스티븐 공원(*Stephen's Green*)을 지나가며 그것이 자기 소유라고 생각한다.

스티븐(*Stephen Dedalus*)은 임의적으로 스티븐보다는 다이달러스를 자기의 운명으로 받아들인다. 사회적으로 파산하여 무능한 아버지의 이름(*Dedalus*)이 완전히 사라지고 무력하게 지워진 것이다. 그는 성직을 제안 받고 나서 거절을 결심한다.

나는 신부가 되어 감실 앞에서 향로를 흔드는 일은 결코 없을 것이다. 나의 운명은 사회이건 종교계이건 거기서 빠져 나오는 데 있다. 신부의 현명한 권고도 내 마음의 급소를 찌르진 못했다. 남에게서 떨어져 나만의 지혜를 배우고 세속의 함정 속을 헤매면서 남의 지혜로 배우는 것이 내게 운명지워진

것이다. (P 162)

우연히 마주친 급우들이 놀림 삼아 그의 이름을 부를 때 그는 자기 소명을 계시 받는다고 느낀다. 자기 이름이 전설의 명장인 다이달러스로 들리자 그는 상상하기 시작한다.

그리고 전설의 명장의 이름이 들리자 그는 어렴풋한 파도소리가 들려오고 날개를 단 형태가 파도 위로 날아 점차 하늘로 올라가는 것을 보는 것 같았다. 이 게 무슨 뜻일까. 태양을 향해 바다 위를 나는 때 같은 사나이. 그것은 중세의 예언이나 상징에 관한 어떤 책의 첫 장에 있는 괴상한 도안이었던가, 그가 섬기기 위해 태어나 유년기와 소년기의 안개 속을 찾아다니던 목적을 예언하는 것일까. 작업장에서 거친 흙덩이로부터 새롭고 하늘을 나는, 불가사의하고도 불멸의 작품을 만들어내는 예술가의 상징일까. (P 169)

그는 자신이 다이달러스가 되어 하늘을 나는 환상을 그려본다. 이름에 의미를 부여하는 과정에 내재한 임의성에 대한 반성 없이 그는 자기의 진로를 확신한다. 손튼(Thornton)은 그가 자신과 문학적, 혹은 역사적 인물들과 순진하게 동일시하지만 그들은 19세기 말 사춘기 소년들이 일반적으로 열망했던 인물들이라는 것을 알면 씁쓸할 것이라고 말한다(85).

스티븐은 자기의 창조를 가능케 하는 패러다임을 어머니, 바로 성모 마리아의 상에서 인식한다(스티빙즈 83). 그가 자기 민족의 양심을 버리겠다는 결심은 세속적 사제의 역할에 비유되는 자기의 사명을 인식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엘리엇 고스(Elliott B. Gose)는 스티븐이 예술의 성찬식을 거행할 때 적극적인 면과 소극적인 면이 결합된다고 말한다(264). 스티븐은 상상력의 사제가 되어 “경험의 일상적인 빵을 몸으로 변형시키(transmuting the daily bread of experience into the radiant body of everliving life)”(P 221) 일을 하겠다고 결심한다.

그는 여성과의 결합으로 이것이 가능하다는 것을 알고 있다. 어느 순간엔가 은밀한 곳에서 꿈같은 영상을 조용히 만날 것으로 예감한다. 지극히 감미로운 순간에 그는 <변용할 것이다. 그 여인이 바라보는 가운데 그는 보이지 않는 것으로 사라지고 다음 순간 변용할 것이다>(P 65). 그 신비한 순간이 오면 허약함과 수줍음과 미숙함이 그로부터 떨어져 갈 것으로 상상한다. 리처드 엘만(Richard Ellmann)

은 조이스에게 예술과 성은 본성의 양면(both aspects of nature)이어서 이 두 가지는 인간의 창조력의 쌍둥이적 표현이고 사랑은 예술의 선행조건이고 예술의 기본 행위라고 말한다(리처드 엘만 174).

이름으로부터 자신의 소명을 계시 받았다고 느낀 후 스티븐은 영혼이 고양됨을 느끼며 바닷가에서 에피파니의 순간을 맞으며 자신이 생명의 중심에 근접해 있다고 생각한다.

그의 정면 흐름 한가운데에 한 소녀가 혼자 가만히 바다를 내다보며 서 있었다. 마술이 진기하고 아름다운 바닷새 모양으로 만든 사람같이 보였다. 길고 날씬한 드러난 다리는 학의 다리처럼 섬세하고 에머랄드빛 긴 해초가 살 위에 무늬를 그리듯 감긴 곳 외에는 티끌 하나 없었다. 통통하고 상아처럼 연한 색의 허벅다리가 거의 엉덩이까지 드러나고 속옷의 하얀 레이스 장식이 보드랍고 새하얀 솜털 같았다. 회색 스커트는 대담하게 허리까지 걸어 올려 뒤가 비둘기 꼬리 모양으로 늘어져 있었다. 가슴은 새처럼 부드럽고 가냘팠다. 검은 깃털의 비둘기 가슴 모양 가냘프고 부드러웠다. 그리고 긴 금발 소녀는 아름다웠다. 또 소녀답고 경탄할 만한 인간의 아름다움을 지닌 것이 그녀의 얼굴이었다. (P 171)

그 소녀는 그저 바닷가에서 만난 아름다운 소녀일 뿐 그에게 계시를 주러 온 천사는 아니다. 그러나 스티븐은 황홀감에 사로잡혀 결심한다.

소녀의 모습은 영원히 그의 영혼 속에 새겨졌고 어떠한 말도 그의 황홀하고 신성한 침묵을 깨지 않았다. 소녀의 눈이 그를 불렀고 그의 영혼은 그 부름에 펄쩍 뛰었던 것이다. 살자. 실수하자. 타락하자. 승리하자. 생명에서 생명을 재창조하자. 분방한 천사가 내게 나타난 것이다. 인간의 젊음과 아름다움을 지닌 천사. 생명의 아름다운 궁정으로부터 온 사신이 일순간 내 눈앞에 온갖 과오와 영광의 문을 활짝 열어 온 것이다. 앞으로, 앞으로, 앞으로, 앞으로! (P 172)

사신으로부터 영감을 받아 작품화하려는 그의 시도는 어머니의 창조인태와 출산의 자리를 전유하는 결과가 된다.

심장의 황홀! 간밤은 황홀에 차 있었다. 꿈인지 환상인지 그는 천사의 삶의

황홀경을 맛보았다. 그것은 단지 황홀의 한 찰나였을까. 아니면 오랜 시간, 오랜 햇수, 오랜 세월이었을까.

영감의 순간은 이제 일찍이 일어났던 일, 혹은 일어났을지도 모르는 일들의 몽롱하고도 무수한 상황의 온갖 측면에서 한꺼번에 반사되어 오는 것 같았다. 그 순간은 한 점 광선처럼 반짝이고 몽게구름처럼 몽롱한 상황으로부터 나타난 혼란스런 형태가 그 광선의 잔광을 부드럽게 감싸주고 있었다. 오. 상상이라는 처녀의 자궁에서 말은 육신으로 변한 것이다. 천사장, 가브리엘이 처녀의 침실로 찾아든 것이었다. 그의 마음 속에 흰 불꽃이 다한 뒤의 잔광이 짙어지며 장밋빛에서 타오르는 빛으로 변해갔다. (P 217)

스티븐은 언어를 천사 가브리엘과 연결시켜 놓고 나서 성적인 충동을 정신적 창조의 알레고리로 변형시킨다. 그는 이 미적 경험을 수태고지(Annunciation)에 비유한다(Schork 21). 스티븐에게 황홀한 순간이 지나가며 어떤 창조의 빛이 비춰오는 것을 느낀다.

에마는 그의 임의적인 투사에 따라 요부로 규정된다. 스티븐이 도서관 앞에서 에마를 만났을 때 분노한 것은 현실적으로 그녀를 자기 것으로 만들 수 없음을 인식하고 좌절하기 때문이다. 그는 상상 속에서 그녀와 결합한다.

붉은 욕망이 다시 그의 영혼에 불을 붙이고 전신을 불사르고 충족시켰다. 그의 욕망을 의식하자 이 빌라넬의 요부인 그녀가 향기로운 잠에서 깨어난다. 권태로운 표정의 검은 눈동자가 그의 눈을 마주보고 떠진다. 그녀의 찬란하고 따스하고 향기롭고 풍만한 나신이 그 앞에 굴복하며 반짝이는 구름처럼 그를 감싸고 유동적인 생명을 가진 물처럼 그를 에워싼다. 허공을 돌고 도는 수증기 구름처럼, 혹은 물처럼 신비의 요소를 상징하는 말이 흐르는 글씨가 되어 그의 머리에 넘쳐흘렀다. (P 223)

스티븐은 에마와의 연애를 상상하며 욕망이 일어나는 것을 느낀다. 그녀의 벗은 몸이 그를 따스하게 감쌀 때 유동적인 물처럼 느낀다. 여기서 스티븐은 말의 문자가 신비의 요소의 상징임을 인식한다. 그리고 그는 유치한 빌라넬(19행 2운으로 된 프랑스 시형)을 완성시킨다.

불타는 정열에 지칠 줄도 모르오?
타락한 천사의 유혹자여.

매혹의 날들을 더 이상 말하지 말아다오.

그대의 눈, 사나이 가슴에 불을 붙이고
마음껏 농락하였어라.
불타는 정열에 지칠 줄도 모르오?

불꽃 위로 피어올리는 찬미의 향연이
바다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피어오른다.
매혹의 날들을 더 이상 말하지 말아다오.

우리의 상심의 외침소리와 슬픈 노래가
성찬의 송가 속에 솟아오를 때
불타는 정열에 지칠 줄도 모르오.

가득히 넘치는 거룩한 성배를
성찬배수의 손이 들어 올릴 제
매혹의 날들을 더 이상 말하지 말아다오.

그대의 나른한 눈매와 아낌없이 펼쳐지는 팔 다리
지금도 우리의 열망하는 시선을 사로잡노라.
불타는 정열에 지칠 줄도 모르오?
매혹의 날들을 더 이상 말하지 말아다오. (P 223-4)

스티븐이 시를 써나가는 과정을 볼 때 독자는 노련한 작가 조이스의 아이러니를 눈치챌 수 있다. 시의 유치함 뿐 아니라 그 과정에는 근거없는 의미화의 비밀이 숨어 있다. 해변에서 우연히 만난 소녀를 하늘에서 내려온 천사의 계시로 만드는 것은 예술가인 스티븐의 마술이다. 습작기에 쓴 그의 시에는 기의와의 관계가 느슨해진 기표들이 만나 장난치고 있는 것을 본다.

담쟁이가 담에서 흐느낀다.
담에서 흐느끼고 휘어 감긴다.
담쟁이가 담에서 흐느낀다.
담 위에 노란 담쟁이가
담쟁이가 담쟁이가 담 위로.

그는 담쟁이(ivy)와 소리가 비슷한 상아(ivory)로 연상을 이으며 노란 상아(Yellow ivory)와 상아색 담쟁이(ivy ivory)까지 생각해내고 자기 머리 속에서 진짜 상아보다 이 단어가 더 선명하고 밝은 빛으로 빛난다고 느낀다(p 179). 그가 주위에서 접하는 언어들은 의미를 상실하고 초라한 간판 글자가 무슨 주문처럼 그의 마음을 엮매고 그런 죽은 말의 사체 더미 사이로 걸어가는 그의 영혼이 늙은이 같은 한숨을 쉬며 위축되는 것을 느낀다. 그는 위의 글에서 언어의 소리와 시각적 연상을 연결 지으며 뜻밖의 언어를 만들어낸다(p 179).

4

글쓰기의 능력은 성적 능력과 동의어이다(Mary Ellmann 87). 예술가로서 소명을 깨닫는 과정과 형상화 작업에 여성이 타자화되어 스티븐의 자기애적 주관을 투사하는 역할을 한다. 이 과정에서 여성의 모습은 인간이 아니라 천사 혹은 약녀의 모습이고 뒤틀려 있으며 이중적이고 배반적이다. 유혹하여 아들을 종교, 국가, 언어 등 상징질서의 대의로 끌어들이는 억압적인 여성은 남근적 어머니의 이미지를 지닌다.

“조이스는 아버지 신뿐 아니라 예술가를 신의 영역에 순응시키고 가두려는 어머니로부터 재현을 해방시켰다”(“Joyce frees representation not only from God-the-father, but from the mother who would confirm and confine the artist...”)(스티빙즈 86). 예술가는 모자 간의 유대라는 창조의 실현을 통해서 상징계와 상징계 이전을 나누는 경계를 깬다 스티븐이 시를 쓰는 과정은 작가의 아이러니가 병존하고 있어 서술의 틈이 생긴다. 그런데 독자로서는 여성을 다루는 서술이 망설이거나 빠뜨린 혹은 침묵하는 간극을 읽어낼 필요가 있다. 조이스가 『젊은 예술가의 초상』에서 본격적인 실험을 하지 않지만 후반 쪽으로 갈수록 비껴보는 시선이 느껴지고 문체의 견고함이 흔들리는 것을 알 수 있다. 조이스가 글쓰기에 내재한 임의성을 보이고 있다는 증거이다.

(공군사관학교)

인용문헌

- Bruns, Gerald L. *Inventions: Writing, Textuality, and Understanding in Literary History*. New Haven: Yale UP, 1982.
- Budgen, Frank. *James Joyce and the Making of Ulysses*. Bloomington: Indiana UP, 1960.
- Ellmann, Mary. *Thinking about Women. Feminist Literary Theory: A Reader*. Edited by Mary Eagleton. New York: Basil Blackwell, 1986. pp.86-7.
- Ellmann, Richard. *Ulysses on the Liffey*. New York: Oxford UP, 1974.
- Gose, Elliott B. "Destruction and Creation in Portrait," *James Joyce Quarterly*, Vol.22. no.3. Spring 1985, pp. 259-70.
- Gottfried, Roy. *Joyce's Comic Portrait*. Gainesville: UP of Florida, 2000.
- Heilbrun, Carolyn. *Women in Joyce*. Urbana: U of Illinois P, 1982.
- Henke, Suzette. *James Joyce and the Politics of Desire*. New York: Routledge, 1990.
- Joyce, James. *A Portrait of the Artist as a Young Man*. Harmondsworth: Penguin Books, 1977.
- _____. *Ulysses: The Corrected Text*. Edited by Hans Walter Gabler with Wolfhard Steppe and Claus Melchior. Harmondsworth: Penguin Books, 1986.
- Kershner, R. B. (ed) *A Portrait of the Artist as a Young Man: James Joyce*. Boston: St. Martin's P, 1993.
- Riquelm, John Paul. "Stephen Hero, Dubliners, and A Portrait of the Artist as a Young Man: styles of realism and fantasy" 103-30 in *The Cambridge Companion to James Joyce*, Derek Attridge (ed), Cambridge : Cambridge UP, 1991.
- SCHORK, R. J. *Joyce and Hagiography: Saints Above!* Gainesville: UP of Florida, 2000.
- Scott, Bonnie Kime. *Joyce and Feminism*. Bloomington: Indiana UP, 1984.
- Stubblings, Diane. *Anglo-Irish Modernism and the Maternal: From Yeats to*

Joyce. New York: Palgrave, 2000.

Thornton, Weldon. *Voices and Values in Joyce's Ulysses*. Gainesville: U P of Florida, 2000

Woolf, Virginia. *The Common Reader*. London: Hogarth, 1975.

Abstract

A Portrait of the Artist as a Young Man: Appropriation of Creativity

Jeong Sook Ahn

Joyce is sometimes regarded as one of male chauvinists including Mailer, Lawrence, and Hemingway. I think the criticism results from his male-centered narrative in which he places females as “others”, inferior beings in the dichotomy of mind/flesh, intellect/feeling, and knowledge/ignorance.

Females are almost no human beings with neither activities nor personality in *A Portrait of the Artist as a Young Man*. They are radical “others”. Stephen Dedalus struggles to reject Fathers’ discourses in order to be an artist. He needs females for his aesthetic contemplation and he wants to project his feelings and thoughts into females in order to attain his real vocation. Women are steps he uses to get a higher stage of maturity.

Women as mirrors projecting Stephen’s love, horror, and disgust emerge as angels or temptress. Mrs. Dedalus, Stephen’s mother seems to be the “phallic” mother imposing symbolic system on her son. The artist is able to approach the underside of “the symbolic order” by writing mothers who defy the spaces the patriarchal cultural tradition constructs for them. In *Stephen Hero*, Emma is Stephen’s girl friend going to the same college. She is depicted as an intelligent, active individual, in short, live character. But after casting the manuscript of *Stephen Hero* into fire, Joyce tries to reduce the character, Emma, to nothing with the intention of portraying the growth of a male artist. Emma as a substitute of the “phallic” mother is appealing to Stephen only when she is equipped with sensual warm body of a temptress in *A Portrait*.

Females become Stephen’s supporting goddesses. The girl he meets on the

seashore is transformed into an emblematic bird. The idealized female offers a Lacanian mirror image of fictive coherence, according to S. Henke she evolves into a permutative symbol of radical otherness. With the vision of the girl, he realized a mission “to encounter for the millionth time the reality of experience and to forge in the smithy of his soul the uncreated conscience of his race.”

But in this scene, readers realize it is the artist’s imagination that weaves unrelated things and situations into a meaning. Stephen deploys the Catholic concept, “epiphany” which reveals the true presence of Jesus Christ, Messiah. The artist’s random analogy of unrelated situations, I think, imposes its meaning on the scene in the free play of signifiers signifying nothing. That is a secret of creation. Stephen recreates the reality in his image to transmute the daily bread of life into the radiant body of everliving life.